



미국 공영방송 지원체계와 CPB 폐지의 짜장

배수영

매사추세츠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목차

- 1 서론 : 미국 공영방송 체계와 구조적 전환점
- 2 미국의 방송 시스템과 공영방송
 - 1) 미국 공영방송 시스템의 기원과 공영방송법
 - 2) 공영방송 지원 체계와 지역방송 활성화
- 3 CPB 폐지 결정과 미국 공영방송의 위기
- 4 결론 및 한국 방송 환경에 주는 시사점

요약

미국의 공영방송은 시장 중심의 방송 생태계 속에서도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권형 구조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결합해 온 독특한 모델로 발전해 왔다. 특히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를 중심으로 한 재원 지원, 지역방송국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디지털 전환기에 이루어진 인프라 투자 등은 지역 기반 방송이 공적 역할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CPB가 운영 중단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지원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지역 뉴스 공급과 공공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글은 미국 공영방송 지원 체계의 구조와 변화를 검토하고, CPB 사태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식 모델의 강점과 한계를 함께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한국의 공영미디어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론 : 미국 공영방송 체계와 구조적 전환점

미국의 공영방송 체계는 유럽의 공영방송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영국의 BBC나 독일의 ARD, ZDF처럼 국가가 직접 소유 및 운영을 하거나, 강제력 있는 수신료 제도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유럽식 공영방송과 달리, 미국은 일찍부터 지역 중심의 탈중앙화된 모델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모델은 연방주의와 작은 정부를 중시해 온 미국의 역사적, 정치적 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앙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을 강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비영리 조직, 민간 기부를 통해 공적 영역을 유지해 온 미국의 정치 문화가 방송 시스템에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영방송공사(CPB,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왔다. CPB는 직접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편성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연방 예산을 PBS, NPR, 그리고 전국 각지의 지역 공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 분배하는 핵심적인 재정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의회는 CPB에 약 5억 2,500만 달러(약 7,100억 원 규모)의 연방 예산을 승인하며, 공영방송 생태계의 유지와 프로그램 제작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백악관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편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속에서 CPB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단행했고, 결국 2026년 1월 이후 CPB 조직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한 기관의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공영방송 지원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CPB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수많은 지역 공영방송국은 재정적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뉴스의 유지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 정보 격차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본 글은 미국 공영방송 지원 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재정 메커니즘, 그리고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요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사례가 한국의 방송 지원 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영방송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2. 미국의 방송 시스템과 공영방송

미국의 방송 시스템은 상업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 종교방송, 커뮤니티, 비영리 방송 등 여러 영역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광고 수익을 주된 기반으로 삼는 상업 방송과 달리 교육과 문화, 공적 정보 제공을 핵심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미디어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 조직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편성하거나 방송국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제작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개별 지역 방송국¹⁾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방송국이 제작한 콘텐츠는 공영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으로 공유된다. 따라서 미국의 공영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와 공영 라디오 네트워크인 NPR(National Public Radio)은 지역 방송국들을 느슨하게 묶어주는 협회이자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PBS에는 보스턴의 WGBH, 메릴랜드의 MPT 등을 포함한 약 350개의 가맹 방송국이, NPR에는 뉴욕의 WNYC, 워싱턴 D.C.의 WAMU 등 1,00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 방송국은 각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PBS와 NPR을 통해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제작과 콘텐츠 교류를 진행한다. 재정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지원, 주·지방정부의 지원, 재단 및 비영리 기금, 개인·기업 기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광고보다는 기부와 보조금 비중이 훨씬 크다.

이와 대비되는 존재가 ABC, NBC, CBS, FOX 등 미국의 주요 상업방송 네트워크이다. 이들 방송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된다. 상업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얻을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에 편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서 시장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한편 미국 전역에는 1,700여 개 이상의 지역 방송사가 존재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업 방송 계열이나 케이블 시스템에 속해 있고, 일부는 공영방송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지역 뉴스와 지역 정보를 주로 다루는 역할을 한다.

1) 미국 전역에는 ABC, FOX 등 대형 네트워크 소속의 상업 지역 방송국과 비영리 지역 지상파 방송국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전역 지역 방송사'는 미국 내 모든 상업 및 비영리 지역 지상파 방송국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PBS 가맹국과 NPR 소속 방송국은 비영리 공영 네트워크에 제휴된 지역 방송국을 의미하며, CPB 지원 대상 방송국은 PBS와 NPR 계열을 포함하여 CPB로부터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영 라디오와 TV 방송국을 지칭한다.

이처럼 미국의 공영방송은 하나의 중앙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 채널’이라기보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지역 방송국들이 서로 연결되어 공익적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는 네트워크형 공영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중앙집중형 공영방송 모델에 비해 지역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는 동시에, 재정 및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1) 미국 공영방송 시스템의 기원과 공영방송법

미국의 공영방송은 1967년 공영방송법(Public Broadcasting Act)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미국 방송 환경은 상업 방송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교육, 문화, 공적 정보 제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비영리 미디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카네기 위원회(Carnegie Commission on Educational Television)는 교육 텔레비전과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독립적 조직 설립을 권고하였다. 공영방송법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는데, CPB를 독립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하고, 연방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공영방송의 제작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CPB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직접 통제가 아닌 독립적인 이사회 구조를 통해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정치권력이 방송 콘텐츠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과 편집 독립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공영방송법은 CPB의 주요 임무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비상업적 방송의 확대 및 발전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CPB는 지역 방송국이 상업적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카네기 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특별소비세를 신설해 CPB 재원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의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매년 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 과정을 통해 CPB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여 유지하였다. 이는 의회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였으나, 동시에 공영방송 재정이 정치적 환경 변화와 예산 협상의 영향에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결과적으로 내포하게 되었다. CPB는 콘텐츠 제작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재정 지원과 공공성 기준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은 각 지역 방송국이 담당하였다.

지역 방송국들은 연방정부 지원 외에도 개인 기부와 기업 후원에 크게 의존해 왔다. 많은 지역 방송국들이 매년 ‘Pledge Drive’라는 후원 캠페인을 통해 시청자 혹은 청취자에게 정기 후원을 요청하는 관행은 미국 공영방송의 상징적인 풍경이 되었다. 이 시민 기반의 재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공동체가 함께 유지하는 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미국 공영미디어의 독특한 생명력으로 평가되어 왔다. 공영방송법 제정 이후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빠르게 확장되었고, CPB와 PBS, NPR을 중심으로 한 공공 미디어 네트워크는 2025년 기준, 미국 인구의 약 99%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2) 공영방송 지원 체계와 지역방송 활성화

미국의 공영방송 지원 체계는 단일한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연방정부의 직접 지원, 각종 보조금과 기금, 세계 혜택, 주·지방정부의 보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장치들이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것이 CPB의 Community Service Grants(CSG)이다. CSG는 라디오와 TV를 포함한 지역 공영방송국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지역 뉴스,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린이 및 취약계층 대상 콘텐츠 제작을 꼭넓게 지원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행사를 중계하거나 공청회나 토론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활동에도 사용된다.

농촌이나 저소득 지역의 방송국의 경우 CSG가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다. 일부 방송국에서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CSG에 의존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CSG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 공영방송의 존립을 좌우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에 미국 의회가 CPB에 승인한 약 5억 2,500만 달러의 예산 가운데 70% 이상이 CSG 형태로 전국 각지의 공영방송국에 직접 전달되었다. 나머지는 교육 콘텐츠, 다큐멘터리, 공공 관심 이슈를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 등을 위한 콘텐츠와 제작 보조금(Content and Production Grants) 등에 사용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CPB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립인문학기금(NEH)은 미디어 프로젝트 프로그램(Media Project Program)을 통해 역사, 문화, 인문학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에 보조금을 제공해 왔고, 2024 회계연도에만 약 350만 달러가 관련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연방 기관이 공중보건, 과학, 시민교육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세제 혜택도 중요한 간접 지원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방송사와 케이블 TV 네트워크는 장비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방송 관련 연구, 개발(R&D)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주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러 주에서는 지역 내에서 제작·방송되는 콘텐츠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해 왔는데, 조지아주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 투자법(Georgia Entertainment Industry Investment Act)을 통해 영화뿐 아니라 텔레비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지역 미디어 제작 활동을 촉진하였다. 뉴욕주는 공영방송국 운영비 일부를 주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고, 교육부 산하 문화 교육(Office of Cultural Education) 기금을 통해 공공미디어 프로젝트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역 방송국이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지역성을 살린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미국 공영방송 지원 체계의 특징은 다층적이고 분산된 지원 구조가 서로 결합해 전체 생태계를 지탱해 왔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의 직접 보조, CPB를 통한 구조적 지원, 세제 혜택과 기금, 주·지방정부의 보완적 역할이 결합하면서 미국식 공영방송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구조는 중앙의 강력한 보호막 대신 복잡한 재원 조합과 정치·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CPB 폐지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된다.

3. CPB 폐지 결정과 미국 공영방송의 위기

2025년 백악관과 의회는 공영미디어에 대한 연방 지원 축소를 본격화하면서, CPB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결국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백악관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CPB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CPB 이사회 내 특정 성향의 이사들을 해임하고 NPR 및 PBS에 대한 CPB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연방 기관을 통한 기타 공공미디어 보조금 프로그램을 축소, 중단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CPB는 결국 2026년 1월을 전후해 대부분의 운영을 중단하고 최소 인원만 남겨 잔무 정리에 들어가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공영방송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PB는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CSG와 다양한 제작 보조금을 통해 전국 1,500개가 넘는 공영 TV·라디오 방송국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떠받쳐 온 재정적, 제도적 중심축이었다. 이 축이 사라질 경우, 각 지역 방송국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아오던 안정적인 지원을 상실하게 되며, 재정 기반이 취약한 방송국일수록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 지역의 공영 방송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대도시의 대형 공영방송국은 비교적 넓은 기부 기반과 기업 후원, 재단 지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방송국은 CPB 지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CPB 자금이 차단될 경우 이들 방송국은 인건비와 송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뉴스와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콘텐츠, 지역 문화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커진다. 이 문제는 단지 방송업계 내부의 재정 위기를 넘어, 정보 접근의 형평성과 민주적 공론장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공영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사실상 유일한 정보 채널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지역에서 공영방송이 약화되면, 주민들의 정보 격차는 심화되어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CPB의 사실상 기능 중단 사태는 미국 공영방송 지원 체계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미국 공영방송 체계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분명 중요한 강점을 제공해 왔다. 지역 중심 구조 덕분에 각 지역 방송국은 지역 주민의 문화, 교육, 정보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콘텐츠를 통해 공영방송만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연방정부 보조금뿐 아니라 개인, 기업 기부, 재단 지원 등 다원적인 재원 구조도 공영방송을 특정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시키는 데 기여했다. 기부 중심 구조는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시청자와 방송국 사이에 독특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취약성도 상존했다. 무엇보다 미국에는 BBC처럼 수신료에 기반한 재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의회의 연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영방송 지원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경우, 예산이 삭감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또한 공영방송 서비스의 질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부유한 대도시의 공영방송국은 다양한 기부

와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반면, 인구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방송국은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바로 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 방송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미국의 CPB의 기능 중단은 미국 공영방송 체계가 가진 구조적 불안정성이 극단적으로 표면화된 사건이자, 지역 공영방송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한국 방송 환경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공영방송 지원 체계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지역 기반의 분권형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별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PBS와 NPR이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구조는 다원적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전국적 이슈와 지역적 이슈가 교차하는 공공미디어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5년 CPB의 폐지는 이러한 모델이 지난 구조적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역 공영방송국의 재정 안정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떠받쳐 온 핵심 기관인 CPB의 예산이 중단되면서, 많은 방송국들이 인력 감축과 프로그램 축소를 불가피하게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항후 미국 공영방송 시스템이 일정한 재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과 플랫폼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미디어 모델의 구축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한국 방송 환경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의 공영 방송 재원 구조는 수신료, 광고, 정부 지원이 혼합된 형태이지만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재정 안정성 강화, 지역성 확대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남아 있다. 미국 사례는 공영미디어가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기반한 안정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 기금 설치, 세제 혜택, 장기 재정계획 등 보다 예측 가능한 지원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영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을 방송 관련 법과 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뉴스 제작비 지원,

지역 방송 인력 양성과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 방송 장비 현대화 사업 등은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된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이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유통 구조와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플랫폼의 전환,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CPB 사태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한 기관의 폐쇄를 넘어, 전국 1,500개 이상의 지역 미디어와 공공미디어 기관이 의존해 온 재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환기하며, 한국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공영미디어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참고문헌

-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2025.8.1.),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Addresses Operations Following Loss of Federal Funding", <https://cpb.org/pressroom/corporation-public-broadcasting-addresses-operations-following-loss-federal-funding>
- Congress.Gov(2025), "Public Broadcasting : Background Information and Issues for Congress",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R/HTML/R48545.web.html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21),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https://www.fcc.gov/document/annual-assessment-status-competition-market-10>
- Mullin(2025.8.1.), B.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Will Shut Down,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5/08/01/business/media/corporation-for-public-broadcasting-shut-down.html>
-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2022), "Tax Incentives for Broadcast Stations", <https://www.nab.org/advocacy/issue.asp?id=5174&issueID=1081>
- Pew Research Center(2023), "Public Broadcasting Fact Sheet", <https://www.pewresearch.org/journalism/fact-sheet/public-broadcasting/>
- Public Media Alliance(2022), "US public media \$50m funding boost approved", <https://www.publicmediaalliance.org/us-public-media-50m-funding-boost-approved/>
- PwC(2023),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Telecom Outlook 2023 – 2027", <https://www.pwc.com/gx/en/industries/tmt/telecom-outlook-perspectives.html>
- S&P Global Intelligence(2024), "Broadcast outlook 2024: Challenges, opportunities facing US TV, radio stations",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research/broadcast-outlook-2024-challenges-opportunities-facing-us-tv-radio-stations>